



## 스웨덴 총선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김 흥 중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mailto:hckim@kiep.go.kr), Tel: 3460-1036)

오 태 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asrocl01@kiep.go.kr](mailto:asrocl01@kiep.go.kr), Tel: 3460-1064)

### 주요 내용

- 2006년 9월 17일 스웨덴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 우파연합은 전체 유권자의 48.1%의 지지를 얻어 46.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사민당 중심의 좌파연합에 1.9% 차이로 승리함.
  - 이로써 1932년에 집권한 이래 두 차례, 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집권해왔던 스웨덴 사민당은 세 번째 야당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특히 이번 사민당의 패배는 경제의 전반적인 호황 속에 나타난 것이어서 이례적임.
- 우파연합의 승리요인은 선거전략상의 우위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됨.
  - 10년간 집권해온 사민당 페르손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점증하였으며, 좌파연합의 선거전략은 구태의연하였음.
  - 반면 4개 정당이 연합한 우파연합은 공동공약을 발표하는 등 단결을 과시하였고, 모두 최근 3~4년 사이에 중용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의 주의를 끌었음. 아울러 우파연합의 점진적 개혁 약속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음.
- 차기 우파연합 정부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바꿔나감으로써, 기존의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2002년 선거에서 과격한 개혁을 내세웠다가 패배한 경험을 되살려, 우파연합은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조세감면과 복지제도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하여 전임 사민당 정권의 과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됨.

## 1. 스웨덴 총선, 우파연합 승리

- 9월 17일 스웨덴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사회민주당(SAP)을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 우파연합은 전체 유권자의 48.1%의 지지를 얻어 46.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사민당 중심의 좌파연합에 1.9% 차이로 승리하였음(표 1 참고). 우파연합은 178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좌파연합에 비하여 7석이 더 많으며 과반수 의석(175석)에서 3석을 더 얻음.

표 1. 선거 결과와 정당별 득표율

	당명	득표율(%)	의석 수	2002년과 의석 수 비교(+/-)
우파연합	보수당	26.1	97	42
	중도당	7.9	29	7
	자유당	7.5	28	-20
	기민당	6.6	24	-9
좌파연합	사민당	35.2	130	-14
	좌파당	5.8	22	-8
	녹색당	5.2	19	-2
기타	기타	5.7	0	0

- 이로써 1932년에 집권한 이래 두 차례, 총 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집권해왔던 스웨덴 사민당은 세 번째 야당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표 2. 스웨덴의 시기별 집권 정당

기간	집권당	총리	비고
1932~46년	사민당	페르 알빈 한손	
1946~69년	사민당	타게 에를란데르	1951~57년 중도당과 연합
1969~76년	사민당	올로프 팔메	
1976~78년, 1979~82년	중도당	팔딘	보수당, 자유당과 연합
1978~79년	자유당	울스텐	
1982~86년	사민당	올로프 팔메	1986년 팔메 피격
1986~91년	사민당	칼손	
1991~94년	보수당	빌트	중도당, 자유당, 기민당 연합
1994~96년	사민당	칼손	페르손 재무장관
1996~2006년	사민당	여란 페르손	칼손 정계 은퇴
2006년~	보수당	라인펠트	중도당, 자유당, 기민당 연합

- 특히 이번 사민당의 패배는 경제의 전반적인 호황 속에 나타난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임. 정권이 교체된 1976년의 경우 1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였으며, 1991년의 경우 스웨덴 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이었음.
- 1991년부터 3년간 스웨덴 경제는 20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였음. 1980년대 말 부동산 붐 이후 누적된 민간 부채가 버블붕괴 이후 심각한 자산 및 금융 부실화를 가져옴. 1991년 ERM 가입 이후 심화된 코로나화의 강세로 스웨덴 경제는 침체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1992년 스웨덴은 ERM에서 탈퇴하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음.
- 1991년 이후 스웨덴은 3년 연속으로 GDP가 감소하였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함. 실업률도 1993년의 경우 8.2%로 치솟았음. 정부 재정수지도 1990년 GDP의 4.3% 흑자에서 1993년에는 GDP의 9.4%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도 1990년 42.9%에서 1994년에는 77.9%로 증가하였음.
- 최근 스웨덴은 분기별 성장률 5%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5.5%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정부 재정수지도 흑자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5%에 불과함. 1인당 소득은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

표 3. 최근 스웨덴의 경제 개황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구	백만 명	8.9	8.9	8.9	9.0	9.0
GDP(명목)	십억 달러	244.4	249.3	253.5	263.0	270.1
1인당 GDP(명목)	달러	24,887.6	27,312.3	33,945.5	38,985.5	39,733.4
경제성장률	%	1.1	2.0	1.7	3.7	2.7
실업률	%			4.9	5.5	5.5
소비자물가상승률	%	2.4	2.2	1.9	0.4	0.5
재정수지(GDP 대비)	%	2.6	-0.5	-0.2	1.6	1.6
수출	백만 달러	78.3	83.2	102.6	123.4	130.2
수입	백만 달러	64.4	67.8	84.4	100.9	111.2
경상수지	십억 달러	9.8	12.5	22.4	24.0	21.7
환율(연평균)	크로노/달러	10.32	9.71	8.07	7.34	7.48

자료: Global Insight(2006), Online Analysis, August; EIU(2006), *Country Report*, July.

## 2. 우파연합의 승리요인

- 우파연합은 사민당과 차별화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어필함.
  - 사민당의 여란 페르손 총리는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 후 10년 동안 스웨덴 모형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스웨덴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왔음. 그러나 장기집권에 따른 유권자들의 염증이 증가하고 있었음.
  - 반면 보수당은 2003년 당시 38세의 젊은 프레데릭 라인펠트를 새로운 당수로 내세웠음. 한편 기민당도 2004년에 요란 하그룬트를 새로운 당수로 뽑았으며, 자유당과 중도농민당도 2001년에 새로운 당수를 선출함으로써 우파연합 주요 정당의 당수가 모두 바뀌었음. 정당 대표의 이미지에 따라 지지율이 변화하기 시작함.
- 우파연합은 과거와는 달리 선거운동기간 중 굳건한 단결력을 과시함.
  - 선거가 있기 2년 전부터 우파 4당(보수당, 중도당, 자유당, 기민당)은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정책과 선언문을 조율함. 마침내 공동공약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연합을 과시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임.
  - 반면 집권 여당은 좌파당에서의 스캔들과 정당간 분열로 인하여 페르손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점증하였음.
- 양 정당간 경제정책은 상당히 수렴하여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기는 어려움. 다만 조세감축에 대한 의지의 강도 차이와 실업률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 우파연합은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따라 2007년부터 재산세를 경감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좌파연합도 급증한 주택가격에 대한 재평가와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또한 우파연합은 370억 크로노(50억 달러) 상당의 소득세 감축을 약속하였으나 과세특례조항의 점진적 철폐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음.
  -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대책이 논란의 중심이 됨. 우파연합은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19~24세 청년층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경감할 것을 공약한 반면, 사민당은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함.

## ■ 기타 우파연합과 좌파연합의 정책 비교

### 1) 직업 및 실업 문제

- 가장 큰 핵심으로 실업률 문제가 언급되었음. 공식적인 실업률은 5%대로 발표되고 있으나,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1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실업자 수와 관련하여 페르손 (전)총리는 22만 5천 명, 우파연합의 라인펠트는 40만 명이라고 발표함.
- 페르손 (전)총리는 매일 550개의 직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라인펠트의 우파연합이 실업수당을 낮추려 한다고 비판함. 반면 라인펠트는 소득세 감면과 고용주에 대한 낮은 세금 부과, 구직자들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함.
- 좌파연합의 사민당은 하루 실업수당을 현재의 730크로노에서 200크로노 인상된 930크로노로 올려, 70%의 실업자가 자신 봉급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제안함.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30억~35억 크로노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
- 우파연합은 젊은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 폐지를 제안함. 동시에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다 취업한 젊은이들에게는 지급급여세 (payroll tax)를 50% 감면시킬 계획을 제안함. 그리고 좌파연합이 계획하고 있는 실업수당 증가가 취업의욕을 낮추어 실업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함. 오히려 실업수당을 낮추고 취업이익을 늘려 실업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제안함.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2) 가족정책

- 우파연합에서는 매달 아이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함. 특히 라인펠트는 저소득가계의 부모들에게 3천 크로노의 조세감면을 제안함.
- 좌파연합 녹색당은 집에 머무르는 부모를 위한 수당은 오히려 더 많은 여성을 집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동시에 페르손 (전)총리는 이런 부모수당을 위해 다른 세원에서 끌어와야 하고 이는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 정책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함.

### 3) 노인정책

- 페르손 (진)총리는 연금수령자들을 위한 주택혜택을 더 높이려고 하면서, 우파연합은 오히려 이 연금수령자들에게 500크로노의 세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함. 한편 사민당은 노인들을 위해 새로 주택 1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4) 의료정책

- 페르손 (진)총리는 우파연합이 스톡홀름, 옘살라, 말뫼 및 룬트에 있는 병원들을 매매하고 조세감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함. 라인펠트는 좌파연합이 거짓된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스웨덴의 의료체제가 탈집중화(decentralised)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5) 조세감면 관련

- 라인펠트는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1천 크로노 정도 감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런 감세가 다른 부문에서의 세금인상 및 특정조세에 행해졌던 감세가 철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그리고 재산세 폐지로 인한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매매과정에서 형성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늘릴 것을 제안함.

## 3. 스웨덴 경제발전 개관 및 스웨덴 모형의 변천

### 가. 스웨덴 경제발전 개관

- 중세 이후 귀족과 왕의 연합체로 구성되어온 스웨덴은 절대왕정기를 지나 19세기 이후 점차 강화된 의회의 권한을 바탕으로 입헌군주국체제를 지속해왔음.
  - 19세기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20세기 초반에 들어와 선진국에 편입되었으며, 1870년부터 1930년대까지 스웨덴의 경제발전은 선진제국 중 일본에 이어 2위에 해당함.
- 1889년에 창당된 사민당은 1920년대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하였고 1932년 이후 두 번의 단절(1976~82년, 1991~94년)을 제외하고는 2006년까지 계속 집권해왔음.

- SAP의 주도로 19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스웨덴 모형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해체의 조짐을 보이다가 외부경제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들어 해체가 가속화됨.
- 1982년 재집권한 사민당은 제3의 길을 내세워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틀을 점진적으로 변화 시켜나감. 노사교섭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인 LO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자율화를 단행함.
-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침체와 기복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1980년대를 통해서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음.
- 1986~90년 동안 실업률은 단지 2%에 머물러 있었으며, 노동시장 참가율도 여성 노동력의 활발한 참여로 80%를 상회하고 있었음.
- 1991년부터 3년간 20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한 후 1994년에 재집권한 사민당은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 경제는 삼림, 철광 등 전통 산업에서 ICT와 제약 등 R&D 집약산업으로 전환되었음.
- 스웨덴 경제는 이러한 정책과 1990년대 하반기 경제 호황 및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회복하여 1995~2000년 동안 3.4%의 높은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정부 재정수지는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정부 부채의 비중도 2000년 말에는 58.2%로 안정화되었고, 실업률도 4%에 머물러 1993~97년 기간의 8%선에서 상당히 호전되었음.
- 현재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기계공업과 ICT 분야임.
- 기계, 금속 공업분야의 수출은 스웨덴 총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ICT 분야의 경우 Ericsson을 필두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 전화기기분야의 경우 2000년까지 10년간 8배의 증가를 기록함.
- Nokia, Intel, Microsoft 등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부문의 상당 부문도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1년 세계경제 침체와 특히 ICT 분야의 침체로 말미암아 스웨덴 경제는 0.8%의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0년대 중후반 1% 이내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2001년 3%까지 상승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스웨덴 경제는 안정된 성장을 보여 왔음(표 3 참고).

## 나. 스웨덴 모형의 변천

-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협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1인당 소득 4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1970~90년 기간 동안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하였음.
- 특히 1인당 소득 1만 5천 달러 내외였던 1980년을 전후하여 노사분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록됨.
- 이 기간에 노사분규가 빈번해진 것은, 첫째, 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 둘째, 1980년 전후의 시대적 상황, 즉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며 노사가 대립하였던 시기였다는 측면이 있음.
- 스웨덴의 경우 이 시기가 스웨덴 노사관계모형의 전환기였다는 특수성도 있음.
-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양측간의 12월 타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전투적이었음.
- 스웨덴은 1880년대부터 사민주의자들의 주도하에 금속노조(Metall)가 주축이 된 블루칼라 노동자 전국조직인 LO가 출범하였음. 이에 대항하여 1902년에는 금속노조를 교섭상대로 하는 기계 및 금속공업사용자연맹 중심의 스웨덴 사용자연맹(SAF)이 출범하였음.
- 1909년 12월 LO와 SAF 사이에는 '12월 타협' 이 체결됨.
- 그 내용은 SAF가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LO는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은 1970년대 LO가 도전할 때까지 유지됨.
-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노사관계는 매우 전투적이어서 파업과 공장폐쇄가 빈발하였음.

- 1919~38년 동안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에서 스웨덴은 1,440일을 기록하여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데 반하여 프랑스는 404일, 독일은 875일, 핀란드는 399일, 그리고 이탈리아는 126일을 기록함.
-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내수부문 노동조합은 보다 강경하였으며, 반면 금속노조를 대표로 하는 수출부문 노동조합은 국제경쟁에 노출된 해당 산업의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온건하였음.
-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은 노사관계의 전환점을 이루었음.
  - 빈번한 노사간 투쟁에 대해 정부는 입법조치에 의한 노동쟁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노사관계의 정부 간여 및 입법 조치를 반대하는 SAF와 LO는 1938년 살트세바덴에서 협약을 맺음.
  - 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노동시장위원회 구성으로서, SAF와 LO는 각각 3인의 대표자를 파견하여 노동시장위원회를 구성,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다루도록 하였음.
  - 이는 노사쟁의에 대해 전국조직인 SAF와 LO의 개입을 명문화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집중화를 낳게 됨.
  - 둘째, 노동쟁의절차의 제도화와 극한적 노동쟁의의 규제임.
  - 상대방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와 해고 문제와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제정하였는바, 중요한 노동쟁의의 경우 SAF와 LO가 앞장서 해결해나감.
- 살트세바덴 협약 이후 노사관계는 LO와 SAF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되며 노동쟁의가 급격히 감소하여 1960년대 말까지 스웨덴은 노동쟁의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음.
  - 1946~76년 동안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에 있어서 스웨덴은 43일에 불과하여 영국의 213일, 프랑스의 566일, 이탈리아의 631일 그리고 핀란드의 630일에 비해 현격하게 작은 수치를 보여줌.
  - 노사분쟁을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 대표기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관행, 즉 소위 '살트세바덴 정신' 이 뿌리를 내렸으며, 여기에는 렌모형이라 불리는 스웨덴식 거시경제 운용모형이 큰 역할을 함.

- LO는 1950년대 초 렌모형(Rehn model)으로 불리는 스웨덴식 경제운영모형을 제시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게 함.
  - 연대임금정책은 산업이나 기업의 수익성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임.
  - 이 정책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노동자들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저임금에 기초하여 연명하는 저수익부문에 경영합리화 압력을 넣는 효과를 낳음.
  - 연대임금정책의 시행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저수익기업 출신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직업알선, 재교육, 이주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고수익부문으로의 전직에 책임을 짐.
  
- 1970년대에 와서 노동운동은 급진화되며 스웨덴 모형이 흔들리게 됨.
  - 연대임금정책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고수익부문 노동자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노동쟁의가 다시 빈번해지기 시작함. 이에 LO와 사민당은 보다 급진적인 공동결정법과 임노동자기금안을 제출하게 됨.
  - 스웨덴식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인 공동결정법으로 경영자의 배타적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었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약이 중시됨으로써 샬트세바덴 정신의 근간이 흔들리게 됨.
  - 임노동자기금안은 1976년 LO 총회에서 승인된 정책안으로서 민간 대기업 이윤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규발행주식의 형태로 노동조합이 소유, 관리하는 임노동자기금에 매년 적립시킨다는 정책안임.
  - 이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대다수 민간 대기업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대단히 급진적인 정책안이었음. 이 기금안은 1983년 사민당 정부에 의해 입법화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주식 보유 등 당초의 핵심적 내용은 다 사상되어 노동조합의 소유권 증대부문이 사라졌음.
  - 또한 1990년에 이르러 이 기금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림으로써 LO는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평가됨.

- 1970~80년대에는 공공부문 노조의 비대화와 노사관계의 정치화가 두드러짐.
  - 1970년대 경제침체를 맞으면서도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임금 인상이 계속되자 실업자가 급증하였으나 이 시기의 실업자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통해 흡수됨으로써 표면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지는 않았음.
  - 공공부문 노조가 비대화되자 민간부문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노, 노사 관계가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됨. 이에 따라 노사분규도 더 많아지게 되었음. 1980년의 경우 노사분규 건수는 200건을 상회하였으며 참가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하였음.
  
- 1980년대에 와서 중앙단체교섭이 몰락하기 시작하였음.
  - 1983년 LO 산하 금속노조는 LO-SAF간 중앙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속 및 기계공업 사용자연맹과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중앙단체교섭의 전통이 깨짐.
  -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확대되어 1990년에 SAF가 중앙단체교섭의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LO를 교섭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게 됨.
  - 1970년대 이후 노사관계 악화로 말미암아 LO의 권력기반이 약화되고 연대임금정책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의문시되었음.
  - 중앙단체교섭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용 증대, 세계화로 인해 개별 기업의 해외영업 강화로 국내 노동자단체와의 교섭의 의미가 줄어들었음. 또한 개별 노동자단체도 고수익 기업의 경우 이탈의 유혹이 강하였으며 공공부문 노조와의 노노 갈등도 한몫을 하였음.
  
- 199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가 도입됨.
  - 경제위기로 스웨덴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후 우파연립정부는 위기극복에 주력하면서 체제전환이라는 슬로건하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자유주의화를 추진함.
  - 임노동자기금을 해체하고, 고소득층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연금제도 개혁으로 연금 수령자가 연금기여금의 일부를 부담케 하였고, 사회복지제도의 일부에 민간 참여를 허용함.

- 1994년에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도 초긴축정책으로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진함.
  - 고용주의 채용 및 해고 권한을 신장시키고 1997년에 발효된 고용법에 따라 해고 및 채용시 선임자 우대원칙이 약화됨.
  - 일시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유효기간이 해고 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었고, 1년 기한 단기고용도 용이해짐.
  -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18개월 기한 단기고용도 허용함. 사회보장 수혜대상에 대한 보다 엄밀한 심사 도입, 목표 취약계층 선정 등이 도입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스웨덴 모형의 현대화는 계속되고 있음.
- 1990년대 스웨덴 경제모형의 변혁을 주도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사민당의 페르손 총리였음. 페르손은 1994년 사민당의 재집권시 재무장관으로서 스웨덴 모형의 현대화를 주도해왔음.

#### 4. 향후 전망

- 앞으로 집권할 우파연합 정부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바꾸어나감으로써, 기존의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우파연합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지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02년 선거에서 과격한 개혁을 내세웠다가 패배한 경험을 되살려, 우파연합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아닌 미세한 수준의 조율형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좌파연합의 총선 패배를 사민당의 정책적 실패나 고세율 및 높은 복지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 식 모델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이후 집권한 사민당은 스웨덴 모형의 현대화를 지속해왔음. 우파연합의 정책은 이러한 스웨덴 모형의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음.

- 우파연합은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조세감면과 복지제도에 대한 미세 조정을 통하여 전임 사민당 정권의 과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됨.
  
- 차기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4당 연합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